

부상·이탈에 불펜 휘청... 뒷심 잃은 5강 싸움

TIGERS

결산(上) - 마운드

양현종·가봉·브룩스 33승 합작
임기영 성장 등 선발진 선방

하준영 부상 이탈·문경찬 이적 등
막 내린 '박·하·전·문'

전상현·박준표도 부상과의 싸움
선발·불펜 잦은 공백에 동력 잃어

뒷심싸움에서 밀린 KIA 타이거즈의 2020시즌이었다.
KIA는 올 시즌 외국인 투수를 모두 교체하면서 마운드를 재정비했다.
지난해 제이콥 터너와 조 윌랜드는 15승을 합작하는 데 그치면서 KIA 부진 원인 1순위로 꼽혔다.
맷 윌리엄스 감독으로 새로 판을 짰 KIA는 '월리엄스 효과'로 박리거 애런 브룩스와 함께 드류 가봉을 영입하면서 마운드를 강화했다.
팀에 합류하자마자 팀워크에서 합격점을 받은 새 외국인 투수 듀오는 성적에서도 원투펀치 역할을 했다.
가봉은 KBO리그에서의 첫 시즌, 4.34의 평균자책점으로 11승을 수확했다. 기복이 아쉽기는 했지만, 양현종(평균자책점 4.70)과 함께 11승을 기록했다.
브룩스는 팀은 물론 KBO리그를 대표하는 활약을 펼쳤다.
브룩스는 150km가 넘는 강속구와 공격적인 승부, 현란한 변화구로 차원이 다른 피칭을 선보였

다. 특히 9월에는 4경기를 0.95의 평균자책점으로 막으며 전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브룩스의 2020시즌은 9월 19일에서 멈췄다. 미국에 있는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급히 귀국길에 올랐고, 브룩스는 2.50의 평균자책점과 11승 4패로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양현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즌을 보냈지만 4·5선발은 지난해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2019시즌에는 내내 '선발 오디션'이 전개됐지만 올 시즌에는 임기영과 이민우를 중심으로 마운드가 돌아갔다. 이민우의 부진, 브룩스의 이탈 속에서는 선발 자원으로 미리 준비했던 김현수와 김기훈이 테스트를 받았다.
선발진의 이닝이 아쉽기는 했지만, 서재용 코치가 캠프 때부터 구상했던 범위에서 '선발진'은 큰 무리 없이 운영됐다.
임기영은 동료들의 실수 연발로 아쉽게 10승은 놓쳤지만 한 단계 성장한 모습도 보였다.
가장 큰 고민은 불펜이었다. 구상에 없던 변수들이 불펜의 발목을 잡았다.
2019시즌 '박하전문'은 KIA의 큰 수확으로 평가됐다. 박준표·하준영·전상현·문경찬으로 구성된 '필승조'는 KIA의 수확이자 미래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시즌 시작 전 좌완 하준영이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했다. 박준표는 예상치 못한 손가락 인대 부상으로 시즌 중반 자리를 비웠고, 전상현 홀로 버티던 8월 12일 문경찬은 트레이드로 NC로 떠났다.
이 시점과 맞물려 KIA 불펜이 흔들렸고 박준표가 돌아오자 전상현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는 등 불펜의 고민이 쌓였다.
한 시즌 만에 '박하전문'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고졸루키' 정해영이 부담 많은 시즌을 보냈다. 팀 위기 상황에서 이내 필승조로 승격된 정해영은 47경기에 나와 분주한 데뷔 시즌을 보냈다.
시즌 내내 고민이 됐던 뒷심. 브룩스 이탈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선발과 불펜에 동시에 빨간 불이 들어왔고 KIA의 순위 싸움에도 제동이 걸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박준표



전상현

'타격왕' 최형우 10월 MVP 도전

타자 중 유일하게 타율 0.400... KBO 양의지 등 5명 후보



'타격왕' 최형우가 10월 MVP에 도전한다.
KBO가 2일 KBO 리그 10월 MVP 후보를 확정했다. KIA 최형우와 함께 투수 알칸타라·플렉센(이상 두산), 타자 NC 양의지, KT 로하스 등 5명이 후보가 됐다.
최형우는 10월 95타수 38안타, 타율 0.400을 찍으면서 유일하게 '4할' 고지를 넘었다. 가장 많은 10 홈런·32타점도 기록했다.
최형우는 10월 뜨거운 타격으로 타율 0.354로 시즌을 마무리하며 '타격왕'에 올랐다. 2013년 LG 이병규·1982년 MBC 백인천(39세)에 이어 KBO리그 최고령 타격왕 3위다.
알칸타라는 10월 6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며 두산의 기적 같은 3위를 이끌었다.
10월 8일 문학 SK전에서는 통산 7번째 한 이닝 최소 투구(9구) 탈삼진 기록을 작성했다. 1.34의 평균자책점으로 41탈삼진을 기록한 알칸타라는 20승을 채우며 다승 1위를 차지했다.
플렉센도 공격적인 피칭으로 10월 5경기에서 0.85의 평균자책점으로 4승을 챙겼다. 10월 20일 사직 롯데전에서는 12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10월 탈삼진(42개) 부문 1위에 올랐다.
'9월 월간 MVP' 양의지의 기세도 여전했다.
양의지는 25경기에 나와 10차례 담장을 넘기며 최형우와 함께 홈런 공동 1위에 올랐다. 10월 23일 대전 한화전에서 포수 최초로 '30홈런·100타점'도 달성했다.
시즌 막판 고열로 주춤했지만 KT로하스는 23경기에서 85타수 33안타, 타율 0.388을 기록했다. 득점권에서는 타율이 0.467로 올라간다.
또 10월 득점 1위(23득점), 출루율 1위(0.480), 장타율 1위(0.788), 홈런 3위(9홈런), 타점 공동 2위(24타점)에 이름을 올리며 KT의 첫 포스트 진출을 이끌었다. 한편 10월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솔)'에서 실시하는 팬 투표를 합산해, 8일 발표된다.
MVP에게는 상금 200만원, 60만원 상당의 골드바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수상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는 1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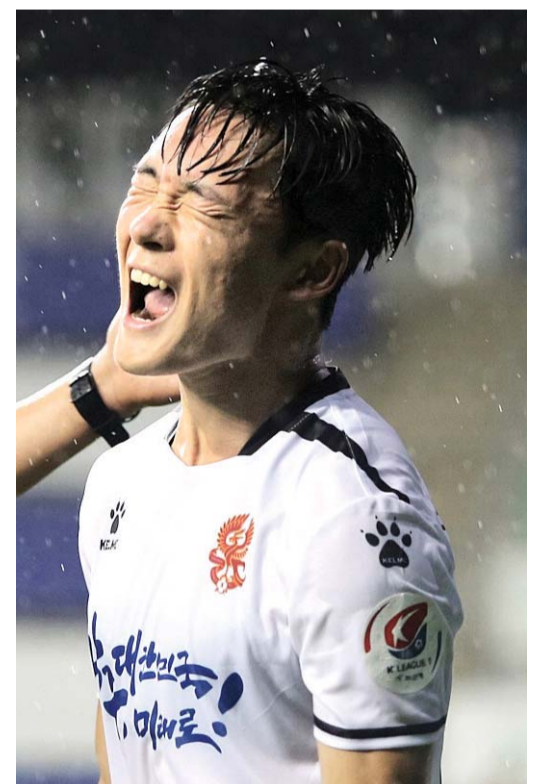
엄원상 '화려한 비상'

축구협, 멕시코·카타르전 출전 선수 발표... 엄, 생애 첫 국가대표 발탁

K리그 데뷔로 시작해 국가대표로 마무리하는 광주FC 엄원상(사진)의 '화려한 시즌'이다.
대한축구협회는 2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카타르·멕시코와의 A매치 원정 2연전(15·17일)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축구를 대표하는 골잡이 손흥민(토트넘)과 황의조(보르도) 그리고 '미레' 이강인(발렌시아) 등으로 꾸려진 공격수 명단에 광주의 '핵심' 엄원상의 이름도 포함됐다.
'김학범호'의 개근생으로 맹활약했던 엄원상의 생애 첫 A대표팀 발탁이다.
엄원상은 지난 9·12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축구대표팀과의 친선 경기에 울림픽축구대표팀 선수로 출전했다. 벤투 감독이 지켜보는 앞에서 '엄살라'의 위력을 발휘한 엄원상은 마침내 한 단계 도약해 국가대표 타이틀까지 차지하게 됐다.
프로 2년 차 엄원상에게는 잊지 못할 최고의 해다.
엄원상은 개막 직전 부상을 입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3라운드 울산전을 통해 K리그1 데뷔전을 치렀다.
데뷔전은 성공적이었다. 엄원상은 그라운드에 나선지 11분 만에 울산의 골대를 뚫으며 팀의 3연패를 끊어냈다. 그리고 올 시즌 23경기에 나와 7골 2도움을 기록했다.
펠리페-윌리안과 막강 '삼각편대'를 구성하면서

팀의 창단 첫 파이널A 진출을 이끈 엄원상은 K리그 대상 영플레이어상 후보에 오르며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엄원상은 "항상 꿈꿔왔던 A대표팀에 합류해 정말 영광이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명단이 발표되자마자 (이)강인으로부터 가장 먼저 축하한다는 연락이 왔다. 다른 해외파 형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 많이 배운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열심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올 시즌 팬들의 많은 응원 없었으면 힘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성인 국가대표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엄원상이 벤투 감독의 호출을 받으면서 광주는 구단 4번째 국가대표를 배출하게 됐다. 앞서 박기동, 이승기, 나상호가 광주 소속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한편 대표팀은 8일 오전 소집해 오스트리아로 출국한다. 그날 FA컵 결승 2차전을 치르는 전북현대와 울산현대 선수들은 따로 본진에 합류한다.

◇오스트리아 원정 평가전 출전 26명 명단
▲GK=조현우(울산) 구성윤(대구) 이창근(상주) ▲DF=김민재(베이징 궈안) 권경원(상주) 박지수(광저우 헝타) 정태욱(대구) 김진수(알나스르) 원두재 흥철 김태환(이상 울산) 김문환(부산)



윤종규(서울) ▲MF=손준호(전북) 정우영(알사드) 황인범(루빈 카잔) 이재성(홀슈타인 킬) 남태희(알사드) 권창훈(프라이부르크) ▲FW=엄원상(광주) 손흥민(토트넘) 황희찬(라이프치히) 이강인(발렌시아) 이동준(부산) 나상호(성남) 황의조(보르도)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4강 결정, 21일 결판

K리그2 대전 선수 1명 코로나 확진으로 일정 조정

전남드래곤즈의 '4강' 결정전이 오는 7일에서 21일로 연기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일 "2020 K리그2 27라운드 전남과 서울이랜드의 경기 일정을 7일에서 21일 오후 3시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리그2 정규리그 최종전인 27라운드는 7일 오

후 3시 열린 예정이었다. 10개 팀이 5곳의 경기장에서 동시에 2020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순위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대전 선수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정에 변화가 생겼다.
앞서 연맹은 대전과 경남FC의 27라운드 일정만

21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26라운드 경기 결과 3위 서울이랜드(승점 38)부터 4위 전남(승점 37), 5위 경남(승점 36), 6위 대전(승점 36)의 4강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서, 네 팀이 동등한 조건에서 27라운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했다.
이에 따라 전남은 21일 4강 확정을 위한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한편 전남전 이외에 순위와 상관없는 나머지 3경기(아산-제주, 안산-부천, 안양-수원FC)는 기존대로 7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